



Q 年평균 어가소득 4천만원 수산물 1인 소비량 54kg

우리나라 연평균 어가소득은 4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약 54kg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열린 '2015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어가소득은 394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 소득은 1881만원, 어업 외 소득은 2067만원이었다.

어가수는 총 5만9129가구, 어가인구는 총 14만1855명이었다.

올해 연평균 어가소득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4044만원(어업소득 1946만원·어업외소득 2098만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53.9kg 수산물을 소비했다. 수산물 종류별로는 어류 22.4kg, 패류 16.0kg, 해조류 15.6kg을 소비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국민 1

■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전망 분석 광어·미역, 출하량·가격 상승 우럭·전복, 출하 늘고 가격 하락

1인당 평균 54.9kg 수산물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액은 2012년 23억5000만달러에서 2013년 21억4000만달러, 2014년 20억700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수출액이 2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물 수입액은 2012년 37억8000만달러에서 2013년 36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가 2014년 42억6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수입액인 43억80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 하락과 일본 엔저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내 주요 양식수산물 출하량 및 산지가격(kg당)은 지난해와 비교해 광어는 출하량이 3만8200t 증가하고 가격은 1만~1만1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럭은 출하량(1만9400t)은 늘고, 가격(8380원~8980원)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복 역시 출하량(1만t)은 늘고, 가격은(4만9000~5만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굴도 출하량(3만3000t)은 증가하고, 가격은(6400~6700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 1억3700만속이 늘지만, 가격은 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역은 출하량(39만t)과 가격(900~1000원)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협 “올 농식품 수출 목표 4500억”

홍삼·유자차·김 등 수출시설 추가 건립

농협이 올해 수출목표로 4억20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원을 설정했다. 농협은 지난해 역사상 최고인 3억35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수출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가공식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농협의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다. 농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홍삼·유자차·선식·김치·김 등 가공식품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자차는 고품 두원농협에 수출전용시설을 추가 설립하고 김은 충남 홍성군 광천농협에 수출용 김생산 시설을 신규로 설립한다. 또 선식의 미국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한식요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화권 공략도 본격화한다. 홍삼의 경우 지난해 개

설한 중국 산동성내 농협홍삼 안테나숍을 활용해 테스트 마케팅을 추진하고 농협홍삼 단일브랜드 홍보 및 수출확대, 수산물 시범수출 등 중화권내 수출 1위 브랜드 쟁취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T-MALL내 한국관 입점을 추진하고 현지 홈쇼핑에 유자차 선물세트를 런칭하는 등 마케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은 전통주 주력시장인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해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엔저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에는 손실보전 수단을 동원해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파프리카가 2013년 수출액이 75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7700만달러로 증가했다”며 “일본에서도 재도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협중앙회 4연속 부패방지시책 ‘우수’

수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 특히 지난 2011년도 평가부터 4년 연속으로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해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협은 그 동안 반부패 경쟁력 배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인 관행 개선 등 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투명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반부패 청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공익집행 제보 의무를 위반한 자의 직상급 및 차상급 지위 감축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 제도를 마련한 것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부패위원회 상설 운영,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 운동을 병행해 전국 지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간담회를 실시한 것도 기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김재수 aT 사장의
푸른농촌 이야기

설맞이와 ‘나주 배’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다. 올해는 설 연휴가 길어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은 가족, 친지와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설이나 추석 명절은 성수품이나 각종 제수품 구매가 활발한 시기라 해서 ‘대목’이라고 부른다. 명절음식, 선물 등을 구입하며 경제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시기이다. 특히 과일, 채소, 생선, 육류 등 농수산물 소비가 집중되어 생산 농어업인들의 기대도 증대된다.

설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떡국이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어야 한살을 더 먹는다고 여겼다. 길고 흰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으며 정수를 기원했다. 과일과 식혜도 빼놓을 수 없는 설날 음식이다. 우리나라는 새해 설날 세배하러 온 사람에게 떡국과 김치, 식혜나 수정과, 과일 등 ‘세찬(歲饌)’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다. 특히 배는 조율이시(槲栗梨柿),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을 순서대로 놓음과 하여 차례상에 꼭 올려야 하는 과일이 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명절 선물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했고 설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수입과일이나 현대식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는 가정도 많다. 수입과일 선물세트도 쏟아진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전략이 수입산 농산물 소비를 부추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망고, 자몽, 키위, 체리 등 종류도 다양한 수입과일 선물세트를 늘리고 있다.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져 정겹던 명절 풍경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화 한통으로 차례상 음식세트가 배달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온라인으로 용돈 몇 십만원 송금하고 만다. 허망한 몰순주의에 정신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

작년 가을 과일류의 풍작으로 사과, 배 등 주요과일은 산지 저장량이 매우 많다.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판촉사업 지원하는 등 나주배의 미국 현지시장 공략을 역점적으로 실시했다. 덕분에 2014년 배 2408t을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근 나주배원에농협동조합이 aT에 배 판매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도 수여했다. 필자는 지난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한국식품 홍보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산 배를 홍보했다. 특히 미국 최다선 하원의원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에게 나주 배를 역점적으로 홍보하였다.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면서 한국산 배를 극찬하는 찰스 랭글 의원은 맛있는 배 덕분에 손녀딸과 사이도 좋아졌고 하였다. 손녀딸이 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배, 특히 나주 배가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올해도 aT는 다양한 소비촉진과 수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국내 최대 배 생산지이다.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이다. 배는 1967년 대만 수출을 계기로 미국, 러시아, 동남아를 비롯해 최근 호주까지 수출시장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해온 효자품목이다.

올해 설은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맞는 첫 명절이다. 설을 앞두고 혁신도시 초입에도 나주배 직거래장터가 문을 열었다. 설 대목 앞인데도 판매가 예상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경기불황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과일에 밀려 우리 농산물이 설 명절에마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풍작인데도 소득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과일농가의 시름이나 “설 대목이 예전같지 않다”는 유통업계의 푸념을 접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나주배 소비촉진에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올해 설을 나주배 소비촉진의 기회로 만들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합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합세트 (탕+무침+구이)	50,000원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철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